

순정이

“너희 중에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마태 23, 11-12).

연중 제31주일

제 1 독서 : 말라 1, 14b-2.2b. 8-10
제 2 독서 : 1 데살 2, 7b-9. 13
복 음 : 마태 23, 1-12

강론

낮은 자의 모습

● 안 철 문 신부/부안천주교회 ●

사람이 사는 곳에는 규칙과 법이 있다. 우리나라도 모든 국민들이 지켜야 할 법이 있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서로 지켜야 할 국제법이란 것이 있다. 교회에도 신자가 지켜야 할 교회법이 있다. 그러나 법이란 사람이 해야 될 최소한의 규범이며, 그리고 해서는 안될 그야말로 꼭 필요한 규칙들을 정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법을 존중하고 지켜야만 된다. 하지만 법을 지켰다고, 또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했으며, 또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법이란 최소한의 규칙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법을 따라 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법을 뛰어넘는 복음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상식과 법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신다. “너희 중에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모든 것이 바쁘게 돌아가는 험악한 세상에서 이웃을 섬기고 자기를 낮추는 일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실천하기가 매우 힘이 들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는 ‘내 탓이요’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운동은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내 탓이요라는 말은 법과 상식으로 볼 때 항상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복음의 눈으로 본다면 과연 어떨까?

하느님 앞에 내 탓이요라고 고백하는 자는 그분의 분노와 처벌이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을 얻는 자가 되며 하느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는 자는 그분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낮은 자의 자세로 내 탓이요라고 고백하는 마음을 가져 보면서 작게나마 실천해봅시다.

1. ‘참 반갑습니다’라고 말하는 친절함 마음.
2.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유순함 마음.
3. ‘덕분입니다’라고 말하는 겸허함 마음.
4.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봉사의 마음.
5.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감사의 마음.
6.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반성의 마음.



“우리가 먼저 낮은 자의 자세로 내 탓이요라고 고백하는 마음을...”

7. ‘잘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해의 마음.
8.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신뢰의 마음.
9. 자신에게 말하는 인내의 마음.
10. 하느님 앞에서의 진실한 마음.

이제 우리는 상식과 법보다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인 것처럼 살고, 또한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아울러 겸손한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봅시다.

여명

오늘의 죽살이

정 인 섭(안드레아)

대통령이란 이가 국민들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고부터, 야 그가 대를 이은 군사정권의 전동이 시작된 때부터 우리 앞에는 죽음과 죽임의 살벌한 문화가 만발해서 그 꽃이 질 줄을 모른다 슬프고 무서운 일이다.

어쩌다가 어째서 이렇게 됐을까!

에덴동산의 뱀은 하느님과 똑같이 되고자 타락한 천사였으나 그렇다고 쳐도 아담 남자와 하와 여자는 그토록 순결한 채로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 우리 사회의 이 질곡이 해답이 되면서 또 질문도 된다.

하느님과 같아지려는 욕망, 완전한 평화와 사랑과 생명에 힘 일하려는 뜻은 나무랄 것이 못되지만 방법의 잘못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류 조상의 타락 이야기에서 배운다.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곧바로 돌아서 잘못을 버려야 그것이 하느님 나라의 방식이다. 우리 사회가 분열의 원인을 싸안게 된 46년 전 해방 때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지녀야 하는 그 기본적인 방식을 구현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른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는 에덴동산의 하느님·인간·뱀 3자간의 싸움의 계속일 것이란다면, 그리스도가 그 비극을 십자가로 끝장내 구원을 쟁취했듯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또다시 해내야만 하지 않을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고 또 끝난다. 아무도 십자가 죽음을 모르지 않고 필요성을 거부하지 않지만, 동시에 아무도 그 일을 하려 들지 않는다는 말이다.

어느 본당 예비자 교리반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부르짖음을 풀이 말하고 있는데 예비자가 물어왔다. “그때 그 예수님을, 아버지라는 하느님은 왜 아무 손도 쓰지 않았던가요?”

2차 대전 때 유대인 수용소에서 있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죄없이 사람이 목매달려 죽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울부짖었다는 것이다.

“오! 지금 하느님은 어디 있는가!”

그러자 누군가가 조용히 중얼거렸다는 것이다.

“하느님은 저 교수대에 목매달려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 이웃 사람이 또 그리스도인 만큼 나부터 죽어야 하지 않겠는가. 죽되 부활의 예표가 되는 죽음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죽을까?

지금보다 더 좁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옮겨가고 싶은 유혹이 시달리는 나는 이 끈질긴 안일과 이기주의의 뱀을 짓밟아버릴 일이다. 더 자주 사우나와 골프장으로 차를 몰아가고 싶은 이는 이 감각적 쾌락이 흑시라도 우리 모두의 질곡이 되고 있는 남북분단을 더 고착시키는 집단 이기주의에 복무할 수도 있음은 잊지 말 일이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죽음이 부활의 큰 빛, 저 기쁨의 후광 등에 지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

식인종과 선교사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 토인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었다. 그의 정성어린 설득과 노력에 토인들도 많은 것을 깨우쳤다. 그런데 꼭 한 가지를 고치지 못했다. 사람의 고기를 먹는 것이었다. 어느 날 선교사는 매우 엄하게 이들을 꾸짖었다. 그러자 식인종들은 한 번만 더 먹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좋다, 이번에는 정말 지켜야 한다. 내일 아침 저 언덕에 처음으로 오르는 사람이 마지막이다.” 다음날 아침 식인종들이 언덕을 향해 활을 겨누었다. 화살이 날아가 어떤 사람의 몸에 명중했다. 그들을 헌신적인 사랑으로 돌보아온 선교사가 그들이 쏜 화살에 맞아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죽음의 선택

1. 우리는 모두 죽는다.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매우 죄송스런 얘기이지만 하루하루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낀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죽음의 독(毒)이 온몸으로 퍼지고 있다. 어디로 떠나가고 있다. 어디로 가고 있을까? 아니 어디서 올까? 다음과 같은 작은 시(詩)가 생각난다.

“나는 왔다.
그러나 어디서인지 나는 모른다.
나는 존재한다.
그러나 누구인지 나는 모른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인지 나는 모른다.
나는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어디로인지 나는 모른다.
내가 즐거워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나를 놀랍게 한다.”

그렇다. 인간은 죽는다. 죽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인간은 인간을 일컬어 ‘죽음을 향한 존재’라 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2.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도 확실한 답을 내리지 못했으므로도 그러리라. 단지 다음 두 가지 가능성 중 그 나를 선택할 따름이다.

① 죽음- 이는 모든 것의 끝이다. 무화(無化)되는 것이다.

② 죽음- 이는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것’이다. 아니 그 ‘어떤 것’이어야 한다.

위의 두 주장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언제까지 ①일 수도 ②일 수도 있다고 일버무릴 수는 없다. 물론 한쪽을 택했다 하더라도 다른 한쪽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음은 피차 마찬가지이리라. 그러나 어느 새 어느 쪽을 선택한 사람으로 고정되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견뎌나. 특히 정말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거의 력하게 한쪽을 선택한다.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다. 그리고 그 죽음은 선택을 넘어 죽음 후의 삶을 눈으로 보는 듯, 이로 만지는 듯, 귀로 듣는 듯 생각하고 행동한다. 지어 그 죽음이 보이는 보이지 않는 수평선 너머에 이미 있거나 한 듯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3. 죽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다음과 같이 기한다.

※ 다음의 글은 나치 정권하에서 희생된 사형수의 편지 일부이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께!
하느님의 뜻에 따라 저는 오늘 지상에서의 저의 삶을 끝낼 것이며, 이것은 영원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거기에서 우리 모두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몇 시간 후에는 저는 이보다 나은 세상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결코 부모님을 잊지 않을 것이며, 부모님의 평화와 평안하심을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느님을, 하느님을 잊지 마십시오!’

아들 슈리크 올림(대학생, 1943. 7. 13. 사형)



위의 편지에 의하면 슈리크라는 사형수에게 죽음 후의 세계는 전혀 낯선 세계가 아니다. 몇 시간 후 죽은 다음에는 더욱 확실하겠지만 이미 그 세계는 잘 알고 있는 세계이다. 지금 살고 있는 세계보다 훨씬 더 좋은 세계, 그리고 얼마 후면 부모님들도 오게 될 그런 세계로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형수에게 죽음은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넘어가는 관문(關門)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평소부터 기다리던, 또 쉬지 않고 걸어온 여행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감격적인 순간으로써의 죽음인 것이다. 많은 이들의 이러한 모습의 죽음이 매우 놀랍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그렇게 놀랄 만한 것이 못된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었고 지금도 그러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흔치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에게 이러한 죽음을 가능하게 할까?

4. 어떻게 죽음을 아는가?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할 수 있겠으나 내가 알고 있는 확실한 원인은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 때문이다. 그들이 ‘주님’이라 부르고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부르는 예수의 말씀과 삶을 통해 얻어진 신앙이 이를 가능케 한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한11,25-26)라고. 또 이 말씀이 그저 말이 아니고 진실임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증명해 보이셨으니 죽은 라자로를 살리셨고 당신 역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말씀과 사건은 2천 년 전 라자로나 예수 개인에게만 해당되지 아니하고 시공을 넘어선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진리임을 깨달았기에 그러한 죽음이 가능했다.

5. 죽음은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

오늘도 나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을 체험한다.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 그때가 언제일지를 모르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죽음이 확실할진대 그 시기가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그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문제일 뿐이다. 죽음이란 모든 것의 끝인가? 아니면 그 어떤 새로운 시작인가에 대한 선택은 단지 하나의 사상의 선택이 아니다. 그의 전존재(全存在), 현재와 내세(來世)의 모든 것-행과 불행, 기쁨과 고통, 평화와 불안, 의미와 무의미, 존재와 허무 등-을 좌우한다.

숲 정 이 산책



성 모 한 약 방
최 성 용 (요 한)
정 순 옥 (유리안나)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58
☎ 84-7886

신부 부케 전문점
진 선 미 꽃 집
이 마리아
범 디도
☎ 84-2628

웨딩 드레스 전문점
신 부 의 집
최 영 자 (헬레나)
☎ 88-6951
동서관동로 신탁은행 앞

홍부의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늘부보쌈
오 재 천 (안드레아)
정 봉 교 (마카렐라)
호자동 우진아파트 앞
☎ 223-0297~8

축! 은 경
저희 본당 김병엽(베드로) 신부님의 사제 서품 25주년을 맞이하여 축하미사와 축하연이 있사오니 오셔서 기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사일시 : 1990년 11월 7일 (수) 오전 11시
행사장소 : 팔마 성당
천주교 팔마 교회
시목회장: 조 용 덕, 교우 일동

인테리어 선반 ■철재 가구
주족관 ■보 조 키
성 원 인 테 리 어
☎ (0652) 78-1941
육지구 북부시장 내
서 원 식 (아교보)
전화주세요. 즉시 배달 설치해 드립니다.

태화신발백화점
신사화·숙녀화 } 총판매장(공장직영)
아동화·특수화 }
김 문 식 (베드로)
☎ 82-3118
동남로, 종각, 송악로 사거리

은하체육관(태권도)
주소 : 서완산동 1가 201번지
호자주공 APT 3단지 옆
전화 : 83-6482
관장 : 김 기 남 (바로로)
이 난 영 (헬레나)

25분 완성
전북칼라현상소
결혼·회갑·야외 촬영
대표 오 희 웅 (양브로시오)
전주시 고사동 1가 연금매점 남쪽 (오거리) ☎ 85-5335

원봉사 및 지원지를 찾습니다
비서류 : 자필 이력서
격 : 고졸이상의 남·녀로서
걸스카우트 활동에
관심있는 분
의처 : 걸스카우트 전북연맹
☎ 77-6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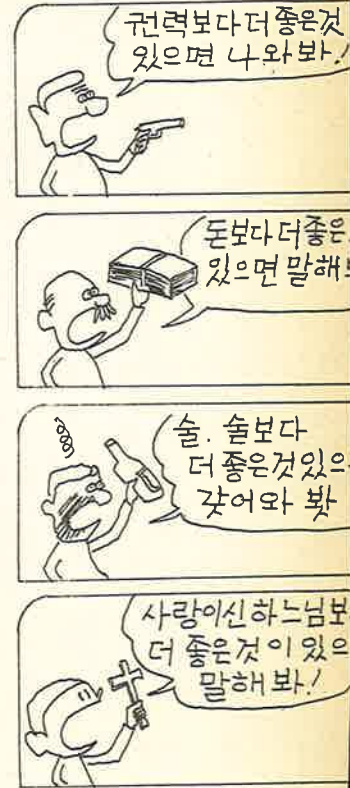
도시 감각의 패션 구두
브 랑 누 아
김 순 희 (마카렐라)
전주지점 (오거리)
코야백화점 개장
☎ 88-5043

직원모집
피정의 집에서 같이 일하실 분을 찾습니다.
*인원 : 2명
*대상 : 35-50세 신자(여)
*할일 : 내부 살림
*문의 : (0652) 73-6600
천호피정의 집

하늘 나라 첫길의 동반자



요십이(900) 김병오



애령회장 이동출(야고보)/송학동 성당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전도 3,2-3).

이 전도서의 말씀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준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필수적으로 죽음이라는 공동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초겨울의 11월은 이 죽음을 생각하게 해주는 계절이다. 이렇게 죽음은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죽음에 직면한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칠순이 가까워진 송학동 본당 애령회장 이동출(야고보) 회장의 겸손하신 첫마디이다.

그가 영세받은 것은 73년 12월 23일. 그 동기는, 어머니께서 오랜 천식으로 고생하시다가 대



세를 받고 돌아가셨을 때, 성당에서 연도하러 온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데서 비롯된다. 영세 후 대부의 권유로 애령회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듬해는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신앙이 점차로 성숙되었고 애령회의 활동도 활발해졌다. 돌아가신 어머니께 해준 신자들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애썼다.

그는 임종을 앞두고 평화스러운 모습, 고스름한 모습 등을 보면서 기쁨 때도 안타까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이 최선을 다하였다. 특히 임종 전에 대세를 받고 하느님 품에서 평온히 선종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흐뭇하기도 했다. 때로는 부패된 시신, 오물이 쏟아지는 시신, 불에 탄 시신, 교통사고를 당한 시신 등을 입관 시켜야 할 때도 있었지만 꺼려지는 마음없이 기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은총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약한 인간이기에 느껴지는 갈등과 어려움, 거부감도 있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푸대접을 받고 외



면당할 때 화가 나기도 했고, 또 임종이 가까워지지도 않았는데 먼 지역에서 자주 부를 때 짜증이 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유혹을 주님께 대한 믿음과 하늘 나라의 보상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극복하여 나갔다.

그는 그동안 210여 명의 임종을 준비시켰고 입관까지 해주었다. 한결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부름이 하느님의 음성으로 느껴졌기에 거기에 “네” 하고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녀들, 친척들도 꺼려하는 온갖 갖은 일들을 마다 않고 언제나 달려가는 그 발걸,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길이자 하늘 나라의 첫길을 끝까지 동반해주고자 하는 그의 아낌없는 사랑과 희생에 깊이 머리 숙이며 돌아가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신태인 성당 가난한 베들레헴에서 시작

신태인 성당은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늦게 설립됐다.

전북 지역 대부분의 본당은 초기 천주교 역사를 반증하듯 산골에 기대어 설립됐다. 이와 반대로 평야부의 본당은 전교가 자유스러워지고, 적어도 신자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선에 이른 후에 만들어졌으므로 그 연대가 훨씬 뒤로 치지고 있다.

신태인 성당도 그렇다. 1954년 현재의 자리에 성당이 자리하고 들어섰으나 그 모체는 1926년 정읍군 산내면 능교리(일명: 능다리)에 세워진 본당에 두고 있다.

그 본당이 1935년 구태인으로 옮겨다가 신태인으로 옮긴 것이 1954년이다.

능다리는 본래 정읍 신성리 교회의 소속 공소로서 교우들이 많이 살게 되고 교세가 발전함으로 1929년 6월 김바오로(창원) 신부가 초대 담임으로 부임하여 설립했다.

김신부는 이곳에 부임하여 20



여 평의 목조 성당을 짓고 추가 5칸의 사무실을 지었다. 초라한 본당의 모습이었으나 당시 다른 곳보다도 교토가 불편했던 것이 본당이 들어서게 된 영동한 연유가 됐다.

그때 이곳에 본당으로서 기능을 담당할 인물도 열성도 보잘것 없었고 더구나 신부를 보필할 신자도 없었다는 기록이 있다.

김 신부는 이같이 약세인 본당을 평야부인 태인으로 옮기기 위해 무리에 무리를 가해 대지 4백여 평을 사들이고 추가 3칸의 사랑을 지었다.

제2대 허다두(일록) 신부가 부임 1935년 5월 1일 본당을 구태인으로 옮겨 성당과 사제관을 세우고 성당을 소화 데레사 성녀에게 봉헌했다.

제6대 신부 이바오로(대권) 신부는 1954년 5월 신태인읍으로 본당을 옮기고 이듬해 12월 20일 임시 성당과 사제관을 준공했다. 이 신부는 이어 57년에 건평 1백 20평의 성당과 2백50평의 부속 건물을 지어 현재에 이르게 하였다.

“본당을 이끌어갈 신자도 열성도 보잘것없었지만...”



교구소식

1. 사무감사: 6일(화) 나운동, 대야. 상관, 노승. 8일(목) 삼례 오룡동. 월명동, 조촌동. 9일(금) 옥봉, 팔마. 창인동, 화산동
2. 축! 견진: 11월10일(토) 오후3시 성심학교.
3. 가톨릭 중등 교육자회 창립 총회: 11월24일 14시 가톨릭센터 대상-전주·완주 지역 중고등학교에 재직중인 가톨릭 신자
4. 가톨릭학생회 청년학생 신앙대회: 11월10일-11일 송광야영회비-4천원 접수처-송광야영장(당일) 오후3시30분.
5. 반주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11월10일(토) 10시-16시 톨릭센터 4층 대상-성가대 반주자 및 관심있는 분 강사-강석(베르린 국립음대 오르간 전공) 회비-1만원.
6. 전방 군중신부 면회: 교구 사제단은 11월5일 10시 최상범 신부 윤양호 신부, 정천봉 신부를 방문합니다.
7. 예비신학생 월레모임: 11일 오후2시-5시 가톨릭센터.
8. 사회복지회 '사랑의 다리' 월레미사: 11월5일(월) 오전10시 분 가톨릭센터 3층 강당.
9. 휘폴라레모임: 중·고·대·일반(남·여) 11월10일(토) 오후 시 군산개정간호대, 11월11일(일) 오후2시30분 가톨릭센터
10. 전북일보 천주교 고령관(7면) '성당의 종소리' 안내: 5일(목) 익명의 그리스도인(정인섭 선생) 7일(수) - 작은 일에도 사랑(최용준 신부) 10일(토) - 천국이랑? (홍보국)
11. 노를담장애자교육원 직업훈련생 모집: 언어 및 지체장애자 훈련 가능한 자(16세-30세 남녀) 면접-91년 1월 중순까지 (032)527-3711.
12. **성소모임** 성령선교수녀회: 11월11일 오후2시 본원(02)764-4750, 성모성심수도회: 11월11일 10시-16시 서울본원(02)278-7491.

※ 축! 영명: 10일(성례오) 박종충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결혼양복 · Y셔츠
킹 - 테크
안성태(대미아노)
활인자(우솔라)
전주시 고사동 1가 95
결혼리사 한성여관 2층간
☎ 84-2804

피노키오 공부방
초등부: 전과목 개인지도
영어, 한문, 독후감
원고 특별지도
중등부: 영어, 수학
유AIPT 전문 완
☎ 5-1378
강정희(대미아노)

철저한 개인지도
관미래속셈학원
정회연(대미아노)
이경애(로마나)
북부시장 앞
☎ 75-2534

관인향속셈학원
본 학원에서는 이와 같은 분들 정성을 다해 교육합니다.
• 컴퓨터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
• 기능사, 기사자격증이 필요하신분
• 가정에서, 직장에서 컴퓨터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
• 기초 계산 능력이 부족하여 산수에 흥미를 잃거나 자신감이 없는 학생
• 주의가 산만하여, 관찰력, 사고력이 부족한 학생
• 고도의 계산 능력이나 수학적인 두뇌를 갖고자 원하는 학생
위치: 금양 성당 옆. 시립 도서관 앞
원장: 박동왕(요한)
교육상담: 76-1858
73-0856

남성 신사복 전문 판매 마츨
(교우여러분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한독패션 명성양복점
☎ 88-5595
☎ 84-3476
☎ 221-9940
전통 전주교 다리 옆
이시몬(성수)

샘물동우회(미원성당)가
보건사회부의 내인가를 받아
활티 탄산수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샘물
좋은 생수는 직접 시음을
해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 85-4205
군산 64-4481
이리 52-5595

사무장 채용
1. 자격: 영세 후 3년 이상된 고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만 35세~40세의 남자
※ 컴퓨터 취급능력자 우대
2. 제출서류: ①영세증명서 1통 ②자필 이력서1통 ③ 호적등본 1통 ④본당신부추천서 1통 ⑤신원보증서(보증인 2명) 1통
3. 제출마감: 1990년 11월 17일까지 (전동성당사무실)
4. 면접일시: 1990년 11월 19일 오전 10시
5. 취무시일: 1991년 1월 1일
천주교 전주교구 전동교회
송학동 성전건립 기금 마련 사랑 나눔 콘서트
축복권
2천원으로 축복과 승용차를...
출발권 1명: 송학차(프라이드)
1등 1명: 피아노
2등 1명: 오디오 셋트
3등 1명: 냉장고
기타 300여명 기념상품
※ 추첨일: 1990. 11. 5(월) 오후 3시
판매처: 각 본당 사무실

서신 서예 학원
초등부·중등부·고등부·일반부
한일고 입구, 서신 성당 구 시제교
차동복(베드로)
☎ 75-9529

형식승인 전 3-7-3825 발명특허원 352
Bio Ceramic
원적외선요 · 사우 L
원적외선 방사로 여성의 생리까지
게 해주는 제품. 확실한 혈액순환
으로 신경통, 생리통, 관절염, 리포화
숙면, 고혈압, 지혈안, 중풍 및 암에
Bio Ceramic
다보청지특별주문생스
전화문의 환영 ☎ 73-0773
신빅토리노·장미카엘라
한국다보

토요일을 찾아주세요

정 태 화(미카엘라)

저희들은 가정형편이 어렵다 보니 머나먼 경기, 서울, 강원, 충청, 경상, 전남이나 본도에서도 무진, 진안, 장수, 순창, 고창 등에서 이리 공단 산책까지 와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산업체 특별학급 근로 청소년들입니다. 평소 저희들은 일하다가 있으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선배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토요일도 같은 날과 마찬가지로 8시간 근로시간을 지키다 보니 밤 9시 30분쯤이나 수업시간이 끝나게 되어 1시간에 고향에 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외딴 부모 또는 할머니 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고향에 가서 가정일을 도와 드리고 상의하고 동생들도 보살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만은 오전 근로를 마치고 2시부터 수업을 하면 됩니다. 저희들 대부분(80%)이 18세 미만이라고 근로시간 1일 7시간씩 6일에 42시간을 구

태어 고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8시간씩 40시간 하고 토요일만 오전 중 4시간 하게 되면 44시간을 할 수 있어서 현행 일반인 근로시간 46시간에 비하면 2시간 덜하는 셈이 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2시간 일을 더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면 충분히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토요일만 되면 무작정 고향에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는 함께 참여하여 힘껏 도와서 훌륭한 회사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토요일을 가정의 날 또는 대화의 날이라고 해서 보람있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에게는 그런 사치스런 이야기는 그만두고라도 일주일 내내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여서 미칠 것만 같은 심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회사에 대하여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게 될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진정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에게 토요일의 반쪽만이라도 달라는 애절한 호소입니다.

소견문

매스 미디어와 신앙인의 자세

백 남 구(프란치스코)/
효자우전 성당

“매스 미디어가 유행만 사용된다면 인류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이익을 성교회는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인정하고”(매스 미디어에 관한 교령 2항)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매스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른 의사 결정과 가치관의 정립에 대한 심각한 자기 상실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윤의 추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천박한 상업주의와 권력의 유지를 지

상의 목표로 삼고 있는 위정자들의 혀끝에서 남발되는 위선과 궤변은 대중을 현혹시키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그 빈도와 강도에 있어서 충분하다.

신문의 경우, 6공화국에 들어서면서 약간의 재량권을 부여받았다고는 하나 아직도 신문사의 독자적인 취재와 해설보다는 정치성, 시사성이 있는 기사물에 대해서는 배급식의 보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상이 짙으며, 방송의 경우도 대중소이한 실정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알고 봅시다

엄마들을 위한 영화

‘로메로’ 상영

일시: 1990년 11월 19일(월) 오후 3시.
장소: 전주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회비: 1,000원.

자유의 성체(聖體)라 불리우는 그의 무기는 진실과 사랑이다. 그러나 끝내 총부리의 잔혹함에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그가 험악한 무기 가운데 계시는 성체를 가슴에 모시고, 쏟아지는 총알 속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히 성전을 걸어나오는 모습은,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로메로 주교와 똑같은 눈물과 감사가 저절로 터져 나온다. 인간차별과 군사정권의 잔혹성 안에 핀 순교의 꽃 로메로 주교의 일생은 우리가 가슴에 간직해야 될 이 시대의 과제가 아닌가 싶다.

* 위령 성월에 권하는 책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 죽음은 결코 마지막 말이 아니다라는 성서의 근본적 계시를 통해 위로와 희망을 준다.

G. 로핑커/신교선·이석재 1,200원 성바오로출판사

이러한 의혹은 같은 날짜의 신문 몇 가지 읽어 보면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매스 미디어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선택과 지식과 예술면에서 뛰어난 가치있는 것들을 옹호해야 하며, 나쁜 전달을 조장하는 것들을 피해야 하는 것이 신자들의 의무”(9항)라고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에 순응하자면 우리는 옳지 못한 내용을 피하는 한편 편향된 보도와 사치스런 드라마, 선정적인 오락물의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보이는 것만을 보고, 들리는 것만을 들을 수 있는 육신의 눈과 귀가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지녀야 할 것이다.

※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노승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재 후
사부실 82-9661 보좌신부 김희태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승남

교구사무감사: 6월 오후 2시. 상임위원은 감사준비에 협력바람.
사목회 상임위원회: 8월 저녁 8시(정원용 부회장) 계획서 제출. 3. 가정방문: 8월 오전-중노2가7반, 14반 후-중노2가8반, 13반. 9월 오전-중노2가12반, 후-중노2가9반, 10, 11반.
4. 예비자 환영식: 6월 저녁 9시(마리피카 회원) 감사드립니다.
5. 모임: 울뜨레아 오늘 후 8시, 성심회 성가대 월례회-6월 어머니미사 후, 기도회-목요일 저녁미사 후, 베소라-월요일 전 10시 30분
6. 초등부 성탄연수회: 10월 오후 3시-11일. 교사전원 참석 바람.
금주 청소구역: 중노1가 3, 4반. 차주-중노1가 5, 6, 7반.
축! 결혼: 11월 12시 신랑-이명성(노렌조) 신부-강미영(타시안나).

탈심미사: 9월 전 10시 30분(성지동 이옥순 씨) 성가대 협조 바람. □ 지난해 봉헌금: 797,800원 □ 교무금: 657,000원

복자 사제관 86-3453 사부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일균

2. 모임: ① 울뜨레아-다음주 수요일 저녁미사 후 ② 전례부-다음주 일 저녁미사 후.
3. 알릴: ① 가정방문-11월 14일(수) 23반, 송원APT반. 11월 21일(수) 24반, 25반 ② 학생미사 시간 변경-일요일 오전 9시(토요일 저녁미사 없음). 11월 4일부터 실시.
□ 지난해 봉헌금: 610,700원 □ 교무금: 463,000원

* 용머리 사제관 84-8123- 사부실 87-0441 주임신부 조정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직환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1. 국화 판매합니다: 5,000원.
2. 꾸리아 모임: 공식미사 후.
3. 꽃봉헌회 모임: 11월 2째 금요일.
4. 청소봉사: 서완산동 1가 동년.
5. 신축헌금 수입금: 21,874,000원 입금: 15,773,000원
□ 지난해 봉헌금: 340,440원 □ 교무금: 863,000원

방문시간: 오전 9시 30분, 오후 2시). 5. 제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6. 금주 전례: 강상근 복사-박종구, 김광택 봉헌-심상기 부부, 차주 전례: 김광택 복사-박명환, 김나설 봉헌-이봉연 부부 □ 본당은 우리의 가정. 교무금은 미루지 말고 봉헌합니다.
□ 지난해 봉헌금: 558,330원 □ 교무금: 532,5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석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영근

※ 11월은 위령성월의 달입니다.
1. 자모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모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사모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금주 전례: 해설-최정순 독서·봉헌-안중기 부부
차주 전례: 해설-장명순 독서·봉헌-함용광 부부
5. 청소봉사: 금주-동정마리아Pr. 차주-자비의 모후Pr.

91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서 제출: 사목회 부서 및 각 심산단체(11월 18일까지). 2. 울뜨레아: 6월 저녁미사 후. 자모회·안나회: 8월 오전 10시. 4. 본당 Pr 단원 교육: 9월 오전 10시-16시. 5. 여성 분과회: 10월 오전 10시. 꾸리아: 11월 오후 2시. 7. 청년회: 11월 저녁미사 후. 가정방문: 6월-다가동 3반, 8월-다가동 4반. 암프시절을 위한 모금: 서로 협력합니다.
금주 전례: 해설-최옥남 독서① 안철조 ② 유경순 봉헌-안철조 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오교선 독서① 유종만 ② 전정숙 봉헌-유종만 씨 부부
지난주 봉헌금: 511,410원 □ 교무금: 861,800원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수현
사부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종홍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득수

* 전동

※ 성전보수헌금 바람. 주일미사에 늦지 않습니다!
1. 재속골라라형제회: 오늘 오후 1시 30분.
2. 구역봉사자 모임: 오늘 저녁 7시.
3. 자모회: 다음주 오전 10시. 4. 사모회: 다음주 오후 2시.
5. 반미사: 11월 6일~9일 동완산동 1, 2, 3, 4반: 반기도회-11월 6~9일(전체구역·반).
6. 축! 영명: 박종홍(레오) 신부님-11월 10일(축하식: 11월 11일 공식미사 후).
7. 사무장 채용 공고: 숲정이 광고란 및 본당 게시판 참조. 협조 바람.
* 금주보수비헌금액: 422,000원 * 현재모금총액: 165,622,220원
* 금주보수비신입액: 200,000원 * 현재신입총액: 236,704,618원
□ 지난해 봉헌금: 1,158,840원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종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김태환
사목회장 황수석

* 효자동

1. 절두산 새남터 성지순례: 집결-6:00, 출발-6:30.
2. 견진교리: 화요일 7시미사 후, 중고생-토요일 5시 미사 후.
3. 무릎 예비자반 교리안내: 일요일 9:30, 수요일 7시미사 후, 금요일 10시 40분, 학생반-토요일 5시 미사 후.
4. 안나회, 울뜨레아: 다음주 11시 미사 후.
5. 글라라회: 14일 수요일.
6. 구역봉사자 모임: 7일 오전 10시 30분.
7. 청소구역: 풍년연립 쌍용주택, 삼천주택단지.
8. 장계를 봉헌: 7자-8만원, 6자-7만 5천원 많은 봉헌바랍니다.
□ 지난해 교무금: 2,020,000원 □ 봉헌금: 867,290원
□ 공사위한 특별헌금: 261,21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석현
사부실 82-5434 사목회장 김증석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꾸리아: 공식미사 후.
교무금 납부날: 매월 첫주(오늘).
성경읽기: 예레미야 21장~30장.
금주 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 이옥동 ② 최영숙 봉헌-김대권, 양재철 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김경재 독서① 여정진 ② 장영미 봉헌-장문옥, 황옥설 씨 부부
지난주 봉헌금: 190,640원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수현
사부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종홍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득수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박병준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광환

※ 11월은 위령성월: 연우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 차기사목회 장추천: 대상-10명 이상 추천된 자, 마감-다음주 일(11일)까지. * 예비자를 인도합니다: 교리시간 안내-신부님반: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수녀님반: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학생반-매주 토요일 저녁 8시.
1. 본당 동산대회: 장소-모악산(참가자는 본당에 집결) 공식미사 후. 2. 자모회: 5일(월) 오전 10시 30분. 3. 성심회: 7일(수) 오후 2시. 4. 가정방문일정: 6일(화) 오전-10, 11반. 오후-13반 7일(수) 오후-14가, 나반 8일(목) 오전-16반, 오후-15반(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창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홍두

1. 사목회: 저녁미사 후. 2. 꾸리아: 공식미사 후. 3. 중고생 정기총회: 학생미사 후. 4. 한나회 단합대회: 5일(월) 오전 9:30. 5. 제대회: 8일(목) 10시 미사 후.
6. 성모회 자모회: 9일(금) 어머니 미사 후. 7. 연도대회: 19일(월) 저녁 7:30. 8. 공식미사: 8일(금) 오후 2시 독배. 9. 들달회 정기총회: 11일(일) 오후 6시.
10. 가정방문: 신부님: 6일(화) 롯데2. 7일(수) 무궁화, 용성. 수녀님: 6일(화) 남양연립, 경술. 7일(수) 한성, 태하. 8일(목) 우진1. 9일(금) 우진2. 11. 가을관공성사: 6일(화) 오후 8시 동원, 원진. 7일(수) 사거리 1, 2. 8일(목) 무지개, 태백. 9일(금) 창하, 신봉. 12. 신축헌금 수입총액: 50,550,000원
지난주 신입액 10,500,000원. 차주 모임: 울뜨레아. 차주 전례: 해설-김인규 독서① 송재만 ② 이화선 기도-① 박종원 ② 김난희 □ 나눔의 헌금: 399,950원
□ 지난해 봉헌금: 539,510원 □ 교무금: 1,187,000원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회의: ① 사목회-11월 7일(수) 저녁미사 후 ② 자모회-11월 6일(화) 오전 10시 30분.